즐거운 논술여행

플라톤의 국가론(Politeia)

'국가론'의 내용은 오직 국가에 대해서만 논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리스 문화의 전통이 담겨져 있으며, 교육, 경제, 사회, 예술, 도덕, 철학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론 등의 사상이 총망라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위대한 작품이다.

본 대화편은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권에서 정의(正義)의 개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정의가 어떤 자에게는 의로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다른 자에게는 불의요 좋지 못한 것이 되는 상대적인 의미와 모든 사람에게 의롭고 좋은 것이 되는 절대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이를 잘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에 있어서의 정의보다 더 확대된 국가에 있어서의 정의를 밝혀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국가에로 대화(對話)를 옮겨간다.

국가의 기원에 대해 플라톤은 신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현실적인 발생론을 제기한다. 국가는 필요에 의해 생긴다고 하고, 그 필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며, 전문적인 분업에는 이에 적합한 인간이 종사하게 마련이다.

만인의 행복 추구하는 이상국가 건설

플라톤의 이상국가 목표는 순수하고 명백하다. 만인의 공동 목표인 행복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표에 대한 참된 인식과 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은 생산자나 전사에게는 기대할 수 없고 오직 철학자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철인정치의 이상을 내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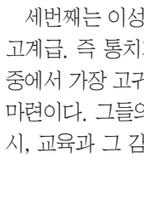
인간이 소규모의 유기체인 것처럼 국가는 거대한 유기체이다. 인간은 영혼의 능력 차이에 따라 세 가지의 인간형으로 분류되는데 국가에도 이에 대응하는 세 계급이 생기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계급은 욕구에 따라 사는 자로 구성되는 것이 서민이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한 욕구로 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공상인 계급이다. 이들은 다른 두 계급에 속하는 자에게 '보수와 영양을 공급하는 자'이며 국가의 경제적인 토대를 이루지만 통치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다

두번째는 기개있는 자에 상응하는 수호자 또는 보조자는 용기와 명예를 높이 평가하는 계급이다. 이들은 밖으로 국가를 수호하고, 안으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임무를 갖는다. 이들은 부 보다는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일체의 사유재산이나 가족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인과 자식까지도 공유해야 하는 완전한 공산사회를 형성한다.

세번째는 이성적인 것에 상응하는 최고계급. 즉 통치자 또는 철학자는 국민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현명한 자가 되게 마련이다. 그들의 사명은 입법과 그 실시, 교육과 그 감독이다. 그들은 순서에 따라 최고의 고위직에 취임하고, 나머지 시간은 철학적 탐구에 헌신하는 것이다. 선의 이데아는 플라톤 철학의 정상이며 이안에서 모든 질서와 정의는 그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략)

이 새로운 이상국가의 대규모 설계에서 플라톤은 기존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치 · 사회의 질서와 생태를 매우 예리하게 분석 ·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특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플라톤이 제시하는 정의로운 이상국가 건설에 요구되는 조건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유효한지를 토론해보는 것도 지방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될 수 있겠다.



황현석
광주대성·초암논술 아카데미 대표강사

수학은 놀이이자 생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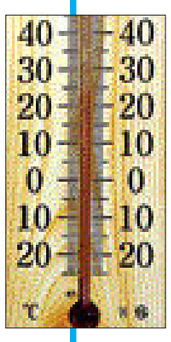
우리아이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안 곳곳 시계·달력 등 좋은 교재
마트서 돈 지불 덧셈·뺄셈 산교육
생각만 바꾸면 '즐거운 과목' 변신

'수학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학창시절 흥미를 가졌거나 아예 전공분야로 삼았던 '특별한'(?)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수학 하면 머리부터 지끈 거리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도 수학이 어려운데, 하물며 아이들은 오죽 할까. 하지만 수학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집안 곳곳에 있는 시계·달력 등은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수학 교재고, 마트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를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인 것이다.

최근 '수학은 밥이다'(주니어김영사 펴냄)를 펴낸 저자 강미선씨는 "아이들이 배워야 할 수학은 생활 곳곳에 있으며 공부의 개념 보다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습지 속 수학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것은 수학을 잘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이다.



◇**수학은 사고방식**=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수학을 배워오길 바란다. 하지만 집 안에도 아이와 함께 '수학'할 것이 널려 있다. 반찬을 만들 때나 시계를 볼 때 속으로만 수를 세지 말고 소리 내어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수를 접하게 된다.

그런 다음 아이에게 "몇 개 일까?", "몇 번째 일까?" 등의 질문을 던져 생각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수 개념을 익힐 수 있다. 과자를 먹기 전에 몇 개 인지 세보고, 계단의 개수를 세면서 오르내리는 일, 모두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수학 교육의 첫걸음이다.

도형도 마찬가지다. 원기둥인 오이를 얇게 자르면 원이 된다. 또 종이 상자를 분해하면 육각면체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 아이가 처음으로 수학을 배우는 것은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바로 집이다. 이제 엄마들도 수학을 학창시절 느꼈던 '골치아픈 과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떻게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수학에 관한 오해들**=요즘 아이들 치고 학습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없다. 학습지는 비교적 싸고 매일 공부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습 형태 중 하나다. 2년 정도 꾸준히 학습지를 통해 수학 문제를 푼 아이들은 새로운 수학문제를 접했을 때 주춤하게 된다. 만약 매일 풀어오던 수학문제와 조금만 달라지면 '어려운 문제'가 돼 버리는 것이다.

부모들이 생각만 바꾸면 일상속에서 아이들에게 쉽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 〈사진=주니어김영사 제공〉

수학교육 칼럼니스트인 강씨는 "학습지 스케줄에 따라 계속해서 공부할 경우 하루에 잠깐씩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호흡이 짧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반복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수학적(논리적) 사고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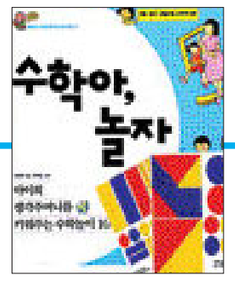
수학공식을 달달 외우는 것도 수학적 사고를 기르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 계산이 수학의 전부라는 생각도 오해다. 조금만 폭 넓게 생각해보면 하루 계획을 짜는 일, 꼭 해야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수학이다. '수'를 넘어선 수학인 것. 아이들이 자기만의 수학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학 잘하는 방법**=수학을 잘 하기 위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 하는 이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독해력을 키우는 것은 수학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며 시각적 상상을 떠올리는 것은 수학 문제를 읽으며 내용을 머리 속에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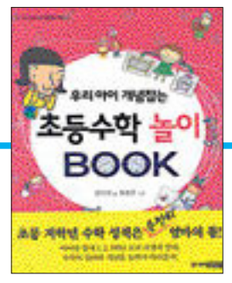
단순한 연산 보다는 문장으로 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좋다. 수학적 사고를 길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 보다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수학 실력은 머리보다 학습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좋은 태도를 갖게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자신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학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암시의 역할이 크다. 여기에 아이를 믿고 지도하는 엄마의 마음가짐이 보태져야 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권장할만한 수학놀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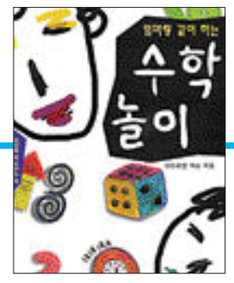


▲ 수학아 놀자 〈한울림·16,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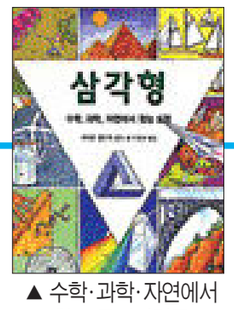


▲ 초등수학 놀이BOOK 〈주니어김영사·12,000원〉

▲ 즐거운 수학시간 만들기1·2 〈우리교육·각권 20,000원〉



▲ 엄마랑 같이하는 수학놀이 〈사계절·7,000원〉



▲ 수학·과학·자연에서 찾는 도형시리즈 〈비룡소·각권 8,500원〉